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홈페이지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골별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내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초등부 대성전) 19:00	
			06:30 (새 벽) 10:30 (교 중)	
			10:3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21:00 (찬양미사)	
	평일	새벽 6:30 / 저녁 7시 (목)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사무실 문의			

2020년 본당 사목 목표 : 1. (세례 받고 파견된 이들)“선교사가 됩시다.” 2.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알 림

- 초등부 신앙학교로 인해 8월22일(토) 오후 4시 어린이 미사는 없습니다.
- 고해소 사용
 - 고해소에 환기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 손소독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능한 짧게 본인의 고해만 합니다.
-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사용 안내
 - 성당 입구에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하였습니다.
 - 바코드를 무인 단말기에 접촉(터치)하여 본인 스스로 출입 기록을 합니다.
 - 바코드가 없는 본당 신자는 사무실에서 발급 받습니다.
- 미사 참례시 주의사항
 - 성당 정문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합니다.
 -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은 후, 키오스크에 바코드로 출입을 기록합니다.
 - 바코드가 없는 타본당 신자는 수기로 기록합니다.
 - 손 소독을 하고 입장합니다.
 - “X”라고 써있는 곳은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 받습니다.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개별 예석)

청소년 주일 2차헌금

- 다음 주일(8/23)에는 교구 공문에 의거 5월31일 청소년 주일에 실시 예정이었던 2차헌금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8월23일(주일)로 이동하여 실시합니다.

노인 분과

- 베타니아 노인정 운영재개
 - 8월18일(화) 13:00 ~17:00
 - 식사제공은 없습니다.

10월 세례식 일정

입교식	8월23일(주일) 교중미사 중
참고, 세례연습	10월11일(주일) 교중미사 후
세례식	10월17일(토) 14:00
첫 영성체	10월18일(주일) 교중미사 중

모 임

모 임	일 시	장 소
꾸리아 월례모임 1Cu.	오늘 12:00	강 당
2Cu.	오늘 13:30	강 당
3Cu.	오늘 13:30	소성전

지역별 주일 미사 참례 시간

구 분	새벽미사 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8월16일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8월23일	4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8월30일	3지역	4지역	1지역	2지역
9월06일	2지역	3지역	4지역	1지역
9월13일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 구역 외 신자분들은 12시, 저녁 7시 미사에 참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서울 대교구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주일 (8/23)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12구역
------	------	-----	------

우리들의 정성(8월05일 ~ 8월11일)

교 무 금	5,914,000 원
주일헌금	4,246,100 원
감사헌금	임맹진10만원 신순례 5만원 익 명10만원 신종구 3만원 익 명30만원 김경두10만원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복 사	독 서
8/16	유명진	조흥환 이응남 김진수 엄태환	최웅조 정재경
8/23	권태희	서윤석 오성환 최상림 김재규	장익근 백희자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시 30분	12시	저녁7시	밤9시
8/16	장인홍	김인기	박승환 이운영 이계명	최승일	장인홍	없음
8/23	김인기	이성일	장인홍 최상남 최승일	오광운	이운영	없음

주보 7면

- 돈보스코 오라토리요 학생모집
-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모집 ***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초등학교, 중학교 기초교육 봉사자 모집
(국어·영어·수학)

• 후원금계좌 : 신한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308. 그리스도교적으로 함께 사는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권력’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사회는 힘 있는 사람들의 권력에 맞추어 형성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교에서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우 공동생활은 오로지 자기 보존을 위한 몸부림이 될 것입니다. ‘노동’을 사회적 공동생활의 최상의 의미로 치켜세운다면, 사람들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 듯 무의미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우연’과 ‘행운’을 최상의 것으로 여기는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기면 삶은 요행만을 바라는 복권이 됩니다. 우리는 본능과 충동만을 따를 것이고, 가장 나쁜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각종 명령을 강요할 것입니다. 가톨릭 사회 교리에서는 인간의 공동생활을 위한 하느님의 기본 계획이 사회적 사랑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원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시는 하느님 앞에서 사는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자녀이며, 서로 형제자매입니다. 감사와 의식과 책임은 우리의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생깁니다. 신뢰와 위로와 삶의 기쁨은 서로를 납득시킵니다. 그 결과 사회적 사랑은 메마를 정신을 극복하고, 사회 안에서 감동적인 일치를 이루어 내며, 종교의 경계선을 넘어 사회적 공동 의식을 실현합니다.

309. 신앙에 따른 사회 참여의 첫걸음은 무엇인가요?

사랑보다 더 깊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위대한 업적을 완수할 수 있고, 완전히 넓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늘 강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늘 발전시키고 사회적인 의무를 진 삶을 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가장 작은 이’를 간과하지 않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또한 신앙을 적대시하는 환경에서조차 자신의 신앙을 증거 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친절과 화해와 평화 등의 생활 방식을 모색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더 나아가 진리와 정의를 위한 투신 중 부득이한 경우 자기 목숨을 바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310. 왜 우리는 분명하게 ‘그리스도교적으로’ 참여해야 하나요?

많은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교적으로’라는 말이 더 필요할까요? 무신론적 특징을 지닌 순수 인본주의는 종종 인간을 경시했습니다. 하느님 곁에서보다 ‘인간적인 것’을 더 향상시키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이행하는 사람은 인간이 나약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무익하게’ 보일지라도 인간의 참된 관심을 대변합니다. 비록 교회가 하느님의 뜻을 종종 변질시키고 거역했을지라도, 하느님은 교회를 당신의 도움을 통하여 인간이 자비롭게 되는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사회적인 동기 곧 사랑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것을 내어 주지 않고서는 사회적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